

신혜원의 가정법 산책 >> 글보기

51:49 저울 계산법

lawhwshin on June 22, 2011

가정법 상담 중에 많이 듣는 얘기가 '내가 다 참고 희생하고 살아왔어요,' 내지는, '인간이 불쌍해서 내 할 수 없이 살아 준거죠' 이다.

이러한 얘기는 남녀 성 구별 없이 통용된다. 의뢰인들이 변호사에게 내려주는 자체적인 결론과 지시는 '어차피 내가 번 재산 다 내 것이니 이혼만 신속히, 깔끔이 처리해 주세요,' 혹은 '한 많은 내 인생, 다, 싹~ 다, 모조리 뺏어 주세요'이다.

이에 변호사가, '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은 간통이 없고요, 과실을 따지지 않고요, 부부 재산은 배우자가 평생 땀땀 놀았어도 반반이고요...' 줄줄 법조항을 읊어대면, 짝 벌어져 다물어 질 기미가 없는 입과 눈가에 번지는 그 상실감이란... 마치 내가 그의 배우자인냥, 차마 보기가 민망하다.

자, 여기서, 냉수 한 잔 드리고 숨 좀 돌려서 차분히 이혼에 따르는 법적 제반 안건과 그 절차를 설명해 드린다. 이러한 첫 상담이 끝나면, 대개는 필자를 다시 찾으시는 일이 없다. 이유는 두 가지, 첫째는 이혼의 꿈을 접고 잘 살고 계시는 경우, 둘째는 '신속히, 깔끔이, 다, 싹~ 다, 모조리 뺏어줄 변호사'를 계속 찾으려 헤매거나 아니면 이미 찾은(?) 경우이다.

그렇다면 그 잔혹했던 첫 상담 이후에, 어제나 오늘이나 한 치도 달라짐이 없는 그 남편, 그 아내와 한 지붕을 이고 지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? 십년이 훌쩍 넘도록 가정법과 살아온 필자는 이를 소극적인 인생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냉철하고도 정확한 '51:49 저울 계산법'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.

51:49 저울 계산법이란? 인간은 원래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것은 물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혜를 갖고 태어난다. 한 마디로, 가정이냐, 이혼이냐를 저울질 할 때, 80 이나 90 이 아니더라도 51 의 플러스와 49 의 마이너스의 균형이 있는 한, 51 의 플러스를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가.

51:49 의 저울의 중심과 기준은 자기 자신만의 맞춤형이지 기성복이나 남의 옷이 아니다. 단, 개개인의 저울에서 공통분모는 찾아 볼 수 있다.

51 의 플러스에는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, 내 자식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, 애들 학교에서 호출하면 나대신 가는 사람, 내게 당장 먹을 것 걱정 안 시키는 사람, 내 비즈니스에서 그래도 종업원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, 교회나 단체 모임에서 쪽 팔리기 싫으면 꼭 필요한 사람, 부부 동반 모임에 데려가야 하는 사람, 밤에 도둑이 들었을 때 그래도 찾게 되는 사람, 그 앞에서 방귀뀌고도 미안한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사람 등...

49 의 마이너스는 열거해서 기분 좋을 일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자.

남들은 다 가지고 다 좋아보여도, 이 잡 저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, 그 집 또한 그

나름대로의 저울추는 있게 마련이다. 그렇다면, 80, 90 을 올려다보며 모자라는 짝을
참아주며 산다고 악약덜 것이 아니라, 과감히 내가 가진 51 의 플러스를 놓지 못하는 내
저울추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.
내 저울추를 꼭 붙잡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닌 나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왕 살 것,
얼굴 쪽 피고 사는 것이 내 건강에 좋다.

반대로, 아직은 내 앞으로 날라 들어온 이혼 소장 구경 못했으니, '나 정도만 해 봐,'라고
큰소리치며 착각하는 분은 없는지. 80, 90 이 아니라 기껏해야 51 인데, 그것도 2%가
부족하면 언제 저울이 팍 기울어 땅바닥에 내패대기쳐질 수 있음을 내다보고 늘 긴장하고 또
감사하는 지혜를 가져보자.